

노숙인 급식소에 웃음을 전파하는 해피 바이러스

제17회 | 은상 | 삼일상업고등학교 황선미

선미는 노숙인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쉽게 다가가기 힘든 노숙인들에게 먼저 큰 소리로 인사하며 웃음을 전파하는 선미. 선미의 웃음을 보며 사람들도 따라 웃는다고 해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를 ‘선미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나 처음에는 큰 소리로 인사하는 선미에게 냉담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선미는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생각으로 극복했다. 정해진 배식 활동 외에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했다. 평소 식사를 하러 오는 노숙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아름다운 문장을 적은 봉투에 사탕과 비타민을 넣어 나누어준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선미 자신에게도 특별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전파하는 해피 바이러스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제는 노숙인들도 마음을 열어 교감하고 있다.

